

‘도심융합특구’ 공모 대응 본격화

전주시, 전북자치도와 TF팀 본격 가동... 호남권 대표 혁신거점 도약 도모

전주시가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공모 신청을 통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혁신 거점을 구축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미래 100년 먹거리를 발굴하고 호남권 경제 지형을 바꿀 대전환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6~7월 정도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공모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외곽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삶과 일, 즐거움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직·주·락

(職·住·樂) 모델을 지향하며,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시가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공모 대응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토교통부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내부 검토를 거듭해 온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차례 정책 회의 등을 거쳐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략 모델을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도심융합특구 관련 브리핑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에는 특구 지정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심용

합특구 지정 추진 TF팀’(총 20~25명)을 구성기도 했다.

TF팀은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대응반 △사업추진반 △전략수립지원반 △기획분석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 LH 전북본부 등이 참여해 공모 전략 도색과 타당성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따라 특구 지정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되면서 전주시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으며, 현재 호남권의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인 ‘5극 3북’ 체제의 핵심 축인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

으로서 탄소소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퍼지컬시티 국가 핵심거점이라는 ‘이중거점’ 지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와 공동 구성한 TF팀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전략산업들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구 내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전북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전주시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권의 중심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며 “그 동안 축적해 온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특구 지정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총력

태풍·호우·폭염 대응... 5월 15일~10월 15일 대책 기간 운영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 호우와 장기 폭염이 반복되는 등 재난 양상이 복합화됨에 따라 인명피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커 폭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속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 발생과 한반도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대책은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상습침수지역 방재시설 정비 △취약계층 보호 및 주민대피 체계 구축 △폭염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산사태·하천·지하공간 등 114개소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지하차도·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시설 통제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세월교와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점검과 준설도 추진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동시에 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장급 상황실 책임제를 운영하고, 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체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 대피훈련과 행동 요령 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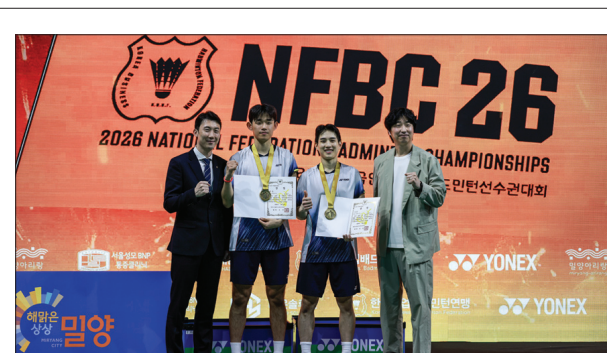
폭염 분야의 경우 시는 위기경보 단

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감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동 요령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무더위쉼터를 상시 개방·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그늘막과 냉온열의자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도시 열섬 완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환자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대책 기간 중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6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한요섭·박다연 조가 남자 일반부 복식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시청 배드민턴팀, 전국대회 제패

창단 1년여 만에 남자 일반부 복식 종목 우승 차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창단 1년여 만에 전국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6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한요섭·박다연 조가 남자 일반부 복식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감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지난 2024년 11월 창단 이후 본격적인 대회 출전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특히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지난해 첫 전국대회 입상에 이어 올해는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과 팀워크를 바탕

으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우승은 배드민턴팀이 창단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간 호흡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물로, 팀의 조직력이 한층 강화됐음을 입증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연속된 전국대회 성과를 거두는 전반기 경기력 향상을 통해 팀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김용현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한층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선수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준비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새봄맞이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지난 20일과 23일 이틀간 시·구·동 공무원과 관할 권역 환경관리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학동과 평화2동, 혁신동과 여의동에서 각각 새봄맞이 캠페인을 통한 취약지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새단장 캠페인은 매일 완산구와 덕진구 각 동을 선정해 추진되며,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동의 취약지 등을 선정해 환경관리원과 시민들이 합심해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시민의식 제고 및 불법투기 일소를 위해 산적해 있는 취약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투기 파대로 및 일몰 후 배출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의심 분투 파봉 등을

통해 현장에서 파대로 단속도 추진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의 취약지 등을 집중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일몰 후 배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나는 ‘격리단길·웨리단길 일원 정비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에는 덕진구 송천1동과 송천2동, 완산구 서서화동과 삼전2동을 대상으로 새단장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당시 80여 명이 참여해 취약지 정비에 손길을 보탬 바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이팝나무 축제’ 맞춰 시내버스 운영 확대

주말을 맞아 이팝나무가 만개한 전주시 팔복동 철길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전주 시내버스가 더 자주 다닌다.

전주시는 오는 25일~26일, 5월 1일~3일 등 총 5일간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26 전주 이팝나무 축제'에 맞춰 방문객 집중 시기에 시내버스 운영을 조정하는 등 교통수요 중심의 운영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만경강변 일대에 특별노선을 운영

하는 등 계절별 관광수요에 대응한 교통 지원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이팝나무 축제 기간에도 교통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주말·공휴일에 집중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시는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 주말·공휴일 버스 운영을 조정해 5개 노선에 버스 7대를 추가 하는 등 교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축제장을 경유하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101번 △103-1번 △103-2번 △

337번 △383번 △385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644번 △684번 △1001번 △1002번으로, 축제 장소인 팔복예술공장 인근 정류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축제 기간 대중교통이 축제장 이동의 편리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자가용 이용 분산을 통해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에도 힘을 예견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버스 행선지 표출 및 정류장 안내 음성을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통 안내를 병행하여 축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이팝나무 축제 대중교통 이용 안내

운영기간 26. 4. 25(토) - 4. 26(일) 26. 5. 1(금) - 5. 3(일)

경유노선 15개 노선 101, 103-1, 103-2, 337, 383, 385, 386, 401, 402, 403, 420, 644, 684, 1001, 1002

하차 정류장 팔복예술공장

문의 전주시버스정책과 063-281-5104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63회 법의 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고민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나의 변호사\(www.klaw.or.kr\)](http://www.klaw.or.kr)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제1부 회장 이삼일		제2부 회장 이민호	
총무상임이사 김용빈	이사 윤석주	이사 강원표	
재무상임이사 이진	이사 최경섭	이사 주우리	
공보상임이사 홍민호	이사 추길환	이사 박심미	
인권상임이사 우아롬	이사 김영호	이사 서한생	
교육상임이사 강호석	이사 김대호	이사 최경환	
법제상임이사 나영주	이사 박궁태	이사 송도희	
여성상임이사 권태희	이사 김환수	이사 김민규	
군산상임이사 유경재	이사 유주환	이사 윤은주	
정읍상임이사 유택	이사 이보향	이사 김성범	
익산상임이사 최환석	이사 박효영	이사 최덕문	
	이사 박기봉	이사 하현환	
	이사 김용선	이사 홍호성	
	이사 장충석		
	이사 최해욱	감사 박영수	
	이사 박수연	감사 김진	

회장 김학수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 063)252-7710 Fax: 0505-299-7568 www.jbbar.or.kr